

재미교포의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 (Impact of ethnic identi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Kore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이 신 영

1. 서론

미국은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국가로서, 개인은 자신이 가진 사회 문화적 배경, 적응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민족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즉 개인에 따라 미국 주류 문화와 동일시하거나 또는 고유의 민족 문화만을 고집하고 유지할 것이다. 미국 사회가 점점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민족정체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민족정체성이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재미교포는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서 이민 역사가 짧지만, 미국사회에서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소수민족 중의 하나이다(Min, 1995). 그러나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울증이 높은 편이다(Hurh & Kim, 1990; Choi, 1997). 재미교포는 자신들을 Korean American 보다 한국인으로 동일시하고 있다(Moon, 1998). 본 연구는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민족정체성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1)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과 문화적 수용성(acculturation)의 개념

민족정체성은 개인이 속한 민족집단에 대한 소속감,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 민족 역사에 대한 지식과 관심, 고유 언어 사용, 그리고 고유 문화 전통 계승 등을 의미한다(Phinney & Rosenthal, 1992). 민족정체성이 자신의 민족집단에 대한 동일시의 정도를 의미하는 반면에, 문화적 수용성은 사회의 주류 문화에 적응하고 수용하는 태도 및 정도에 초점을 두고있다(Sue, Mak & Sue, 1998).

Phinney(1998)는 문화적 수용성을 4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1) 통합수렴형(Integration)은 민족정체성도 강하고 문화적 수용성도 강한 경우, 즉 주류문화와 고유의 민족문화를 동시에 수용하는 것, (2) 수용동화형(assimilation)은 민족정체성은 약하고 문화적 수용성이 강한 경우, 즉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것, (3) 분리보존형(separation)은 민족정체성은 강하고 문화적 수용성이 약한 경우, 즉 민족고유문화를 유지, 고수하는 것, 마지막으로 (4) 주변소외형(marginalization)은 민족정체성도 약하고 문화적 수용성도 약한 경우, 즉 주류문화와 민족고유문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다.

2)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

선행연구에서는 민족정체성이 학교성적(Phinney, 1992), 알콜중독(Moran & Flemming, 1999), 친구관계(Ting-Toomey, 1981), 차별대우 처리능력(Nesdale & Rooney, 1997)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는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졌고(Carlson, Uppal & Prosser, 2000; Martinez & Dukes, 1997), 우울증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Liebkind, 1993). Nesdale과 Rooney(1997)은 민족정체성이 이민자들에게 개인적, 외부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킨다고 보았다.

한편 문화적 수용성과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에서는 통합 수렴형과 수용동화형에 속한 사람이 분리보존형과 주변소외형에 속한 사람보다 심리적 안녕이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다(Nguyen, Messe & Stollak, 1999; Sanchez & Fernandez, 1993).

3.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민족정체성과 문화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별, 세대, 교육, 수입, 미국 거주기간, 한인교회 참석도, 한국 방문 빈도, 차별대우 경험 인지도를 선택하였다. 민족정체성은 문화적 수용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두 요인이 각각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다른 연구들은 심리적 안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능력(Moran & Flemming, 1999), 또는 고독감(Roberts & Phinney, 1999) 등 다양한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민자들에게 가장 흔한 심리적 문제는 우울증, 불안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Berry, 1998).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을 심리적 안녕의 지표로서 사용하였다.

연구 문제는 첫째, 민족정체성, 문화적 수용성, 자아존중감, 우울증이 배경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둘째, 민족정체성, 문화적 수용성, 자아존중감, 우울증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수, 민족정체성, 문화적 수용성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에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등이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1세대는 2세대보다 민족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2. 여자는 남자보다 민족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3. 2세대는 1세대보다 통합수렴형과 수용동화형에 속할 것이다.
4. 남자는 여자보다 통합수렴형과 수용동화형에 속할 것이다.
5. 2세대는 1세대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6. 남자는 여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7. 2세대는 1세대보다 우울증이 높을 것이다.
8. 남자는 여자보다 우울증이 높을 것이다.
9. 민족정체성은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관계를, 우울증과는 부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10. 통합수렴형과 수용동화형에 속한 사람은 분리보존형과 주변소외형에 속한 사람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증이 낮을 것이다.

4. 연구방법

1) 표본과 자료수집

미국 뉴욕주의 중소도시인 알바니(Albany) 지역과 대도시인 뉴욕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2001년 7월과 8월 사이에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인 교회와 한국가게 등을 통해 총 320부를 배부하여 227부가 회수되어 71%의 회수율을 보여주었다. 무응답이 많은 10부를 제외하고 총 21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민족정체성은 MEIM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 Phinney, 1992), 문화적 수용성은 ARSMA-II (Acculturation Rating Scale for Mexican Americans-II : Cuellar & Arnold, 1995), 자아존중감은 RSE (Rosenberg Self-esteem : Rosenberg, 1986), 우울 증은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 Radloff, 1977)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MEIM, ARSMA-II, RSE, CES-D의 Cronbach's Alpha 값이 각각 .86, .76, .82, .8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조사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서는 빈도와 백분율 등의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카이 제곱검정,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5.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에 제시되었다. 우선 성별의 경우 남자 48%, 여자 52%로 나타났다. 연령은 18-29세가 31.8%로 가장 많고, 다음은 30-39세 (27.2%), 40-49

세 (19.8%), 50-59세 (14.7%), 60세 이상 (6.5%) 순이다. 혼인상태는 62%가 기혼자이고 38%가 미혼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82%가 대학졸업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수입은 \$60,000 미만이 52%, \$60,000-99,999가 31%, \$100,000 이상은 11%이었다.

이민과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면, 이민 온 평균 나이는 19.5세이며, 미국에 거주한 평균기간은 18년이며, 47%가 미국에 20년 이상 살고 있었다.

1세대(first generation)는 12세 이후에 미국에 온 경우, 2세대(second generation)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12세 미만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온 경우로 정의하여, 1세대가 67%(146명), 2세대가 33%(71명)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217)

	변수	N	%
성별	남자	104	47.9
	여자	113	52.1
연령	18-29세	69	31.8
	30-39세	59	27.2
	40-49세	43	19.8
	50-59세	32	14.7
	60세 이상	14	6.5
결혼상태	미혼	82	37.8
	기혼	135	62.2
학력 (N=216)	고졸 이하	39	18.0
	대졸 이상	177	81.6
수입 (N=205)	\$60,000 미만	113	52.1
	\$60,000-99,999	68	31.3
	\$100,000 이상	24	11.1
한인교회 참석빈도	없다	25	11.5
	1주일에 1번 이상	94	43.3
	1주일에 1번	77	35.5
	한달에 1번	21	9.7
미국거주 기간	10년 미만	41	18.9
	10-19년	73	33.6
	20년 이상	103	47.4
한국방문 빈도 (N=213)	없다	38	17.5
	5번 미만	125	57.6
	5-9번	35	16.1
	10번 이상	15	6.9
차별대우 경험 인식도 (N=216)	차별대우경험 없다	55	25.3
	아주 조금	40	18.4
	조금	73	33.6
	보통	35	16.1
	많이	13	6.0

2) 민족정체성

민족정체성 측정도구인 MEIM은 세 가지 측면을 측정하는 총 14항목 (긍정적 태도 및 소속감 5항목, 성취도 7항목, 문화실천행동 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총 민족정체성과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민족정체성이 강함을 나타낸다. 성별과 세대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차이점은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그리고 연속변수 (교육, 수입, 거주기간, 한인교회 참석도, 한국방문빈도, 차별대우 경험정도)에 따른 차이점은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표 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족정체성은 성별 $F(1,213)=7.01, p < .01$ 과 한인교회 참석빈도 ($r=.20, p < .01$)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즉 여성인 경우와 또한 한인교회에 참여회수가 많을수록 민족정체성이 높았다. 세대, 교육수준, 수입, 거주기간, 한국방문빈도, 차별대우 경험 등의 요인은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보다 민족정체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2가 입증되었다.

1세대가 2세대보다 민족정체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1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세대($M=43.87, SD=7.02$)가 1세대($M=42.88, SD=6.79$)보다 총 민족정체성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족정체성 하위개념 척도에서는 2세대가 1세대보다 성취도가 높았다 $F(1,204)=8.25, p < .01$.

〈표 2〉 세대에 따른 민족정체성

	1세대		2세대		F	Sig.
	Mean	SD	Mean	SD		
민족정체성	42.88	6.79	43.87	7.02	.92	.38
소속감	16.60	3.00	16.10	3.06	1.24	.267
성취도	20.06	3.68	21.63	3.61	8.25	.005**
문화실천	6.22	1.23	6.13	1.24	.20	.658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성별에 따른 민족정체성

	남자		여자		F	Sig.
	Mean	SD	Mean	SD		
민족정체성	41.91	6.94	44.34	6.48	7.01	.009**
소속감	15.78	3.04	17.05	2.84	10.02	.002**
성취도	20.04	3.91	21.00	3.43	3.68	.056
문화실천	6.09	1.16	6.28	1.27	1.37	.243

*p < .05 **p < .01 ***p < .001

〈표 4〉 민족정체성과 연속변수간의 상관관계

	민족정체성	소속감	성취도	문화실천
교육	.00	-.10	.05	.02
수입	-.02	-.08	.03	.05
거주기간	.06	-.01	.12	.05
한인교회참석도	.20**	.22**	.08	.29**
한국방문빈도	.12	.05	.13	.09
차별경험인지도	.03	.02	.07	-.01

*p < .05 **p < .01 ***p < .001

3) 문화적 수용성

세대 및 성별에 따른 네 가지 문화적 수용형태를 알기 위한 분석으로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이 사용되었다. 표 5,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적 수용형태는 세대($\chi^2 = 103.71, df=3, p=.000$)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지만, 성별($\chi^2 = 7.35, df=3, p=.061$)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2세대일수록 통합수렴형과 수용동화형에 속하여, 가설 3이 입증되었다. 연속변수에 따른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ANOVA 테스트가 사용되었다(표 7 참조). 거주기간 ($F=3.40, p < .05$), 한인교회 참여도 ($F=5.65, p < .001$)가 문화적 수용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Tukey HSD를 이용한 ANOVA 사후검증에서는 수용동화형에 속한 사람이 분리보존형에 속한 사람보다 미국에 오래 거주하였고 ($p=.018$), 분리보존형에 속한 사람이 수용동화형에 속한 사람보다 한인교회에 참석 회수가 많았다 ($p=.001$).

〈표 5〉 세대에 따른 문화적 수용성

	1세대		2세대	
	N	%	N	%
통합수렴형	30	21.3	17	23.9
수용동화형	13	9.2	51	71.8
분리보존형	65	46.1	2	2.8
주변소외형	33	23.4	1	1.4
합계	141	100.0	71	100.0

$\chi^2 = 103.71, df=3, p=.000$

〈표 6〉 성별에 따른 문화적 수용성

	남자		여자	
	N	%	N	%
통합수렴형	19	19.0	28	25.2
수용동화형	30	30.0	33	29.7
분리보존형	28	28.0	39	35.1
주변소외형	23	23.0	11	9.9
합계	100	100.0	111	100.0

$\chi^2 = 7.35, df=3, p=.061$

〈표 7〉 연속변수에 따른 문화적 수용성

	통합수렴형 Mean (SD)	수용동화형 Mean (SD)	분리보존형 Mean (SD)	주변소외형 Mean (SD)	F	Sig.
교육	4.21 (.72)	4.09 (.68)	3.94 (.87)	4.12 (.84)	1.19	.313
수입	3.65 (1.60)	3.51 (1.51)	3.14 (1.31)	3.58 (1.54)	1.33	.265
거주기간	19.20 (7.89)	20.14 (8.09)	15.57 (9.55)	16.79 (10.42)	3.40	.019*
한인교회 참석도	4.06 (1.33)	3.42 (1.62)	4.40 (1.18)	3.62 (1.72)	5.65	.001***
한국방문 빈도	3.50 (2.90)	2.75 (3.03)	2.72 (2.83)	3.36 (4.30)	.82	.484
차별대우 경험	1.57 (1.44)	1.87 (1.20)	1.45 (1.37)	1.65 (1.23)	1.17	.321

*p < .05 **p < .01 ***p < .001

4) 자아존중감과 우울증

세대와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의 차이는 ANOVA, 연속변수에 따른 차이 점은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증도 높음을 나타낸다.

자아존중감은 세대 ($F=13.20, p < .001$), 교육수준 ($r=.23, p < .01$), 미국 거주기간 ($r=.18, p < .01$)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표 8,9 참조). 즉 2세대가 1세대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가설 6과는 반대로 성별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우울증은 가설 7,8과는 반대로 우울증은 세대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8 참조). 우울증은 미국거주기간($r=-.14, p < .05$), 한인교회참석도($r=-.16, p < .05$)와 부적 관계가 나타났고, 차별대우 경험($r=.14, p < .05$)과는 정적 관계가 있었다 (표9 참조). 즉 미국에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인교회에 참여회수가 많을수록 우울증이 낮았다. 그러나 차별대우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증이 높았다.

〈표 8〉 성별과 세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우울증

	1세대		2세대		F	Sig.
	Mean	SD	Mean	SD		
자아존중감	30.81	4.08	33.06	4.66	13.20	.000***
우울증	11.94	7.43	10.76	7.73	1.17	.281
남자 여자						
	Mean	SD	Mean	SD	F	Sig.
자아존중감	31.60	4.23	31.50	4.56	.03	.867
우울증	12.08	7.49	11.07	7.57	.97	.327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연속변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우울증

	자아존중감	우울증
교육수준	.23**	-.12
수입	.12	-.10
거주기간	.18**	-.14*
한인교회참석도	-.04	-.16*
한국방문빈도	-.04	-.08
차별대우경험	-.07	.14*

* $p < .05$ ** $p < .01$ *** $p < .001$

5) 민족정체성, 문화적 수용성, 자아존중감, 우울증과의 관계

가설 9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민족정체성은 자아존중감과 정적관계 ($r=.35, p < .01$), 우울증과는 부적 관계($r=-.31, p < .01$)가 나타났다 (표10 참조). 즉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우울증이 낮았다.

가설 10을 검증하기 위해 ANOVA test가 실시되었다. 표 11에 따르면 문화적 수용성은 자아존중감 ($F=11.37, p < .001$), 우울증 ($F=4.21, p < .01$)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ukey HSD test를 이용한 ANOVA 사후검증에서 통합수렴형과 수용동화형에 속한 사람이 분리보존형과 주변소외형에 속한 사람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반면에, 통합수렴형에 속한 사람이 주변소외형에 속한 사람보다 우울증이 낮았으나, 수용동화형이나 분리보존형에 속한 사람 사이에는 우울증의 차이가 없었다.

〈표 10〉 민족정체성, 자아존중감, 우울증과의 관계

	민족정체성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35**	
우울증	-.31**	-.56**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문화적 수용성, 자아존중감, 우울증과의 관계

	통합수렴형	수용동화형	분리보존형	주변소외형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F	Sig.
자아존중감	33.68 (3.82)	32.75 (4.84)	30.19 (3.71)	29.53 (4.36)	11.37	.000***
우울증	8.57 (6.87)	10.83 (7.54)	11.97 (7.50)	14.50 (7.10)	4.21	.007**

* $p < .05$ ** $p < .01$ *** $p < .001$

6)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민족정체성 및 문화적 수용성과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민족정체성, 문화적 수용성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이었으며, 7개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성별, 교육수준, 수입, 거주기간, 한인교회 참석도, 한국방문회수, 차별대우 경험정도)가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민족정체성과 문화적 수용성이 어느 정도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의 R^2 에 변화를 주었는지를 알기 위해 단계식 접근 방식(hierarchical approach) 사용되었다. 1단계에서는 7개의 배경변수가 투입되었고, 2단계에서는 민족정체성과 3개의 문화적 수용형태 변수(통합수렴형, 수용동화형, 주변소외형)가 첨가되었다.

자아존중감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었다. 모델 1에서 7개의 배경변수가 8.5%를 설명하였으며, 모델 2에서 민족정체성과 문화적 수용성이 첨가되었을 때 자아존중감의 29%를 설명하였다. R^2 의 변화는 유의미하였다 $F(4, 182)=14.44, p=.000$. 한국방문빈도 ($t=-2.24, p < .05$), 교육 ($t=2.74, p < .01$), 거주기간 ($t=2.48, p < .05$), 통합수렴형 ($t=3.23, p < .001$), 수용동화형 ($t=3.26, p < .001$), 민족정체성 ($t=5.05, p < .001$)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수들 중 민족정체성이 자아존중감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다 ($\beta=.34, p < .001$). 한편 한국방문 빈도는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우울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었다. 모델 1에서 배경변수가 4.5%를 설명하였으며, 모델 2에서 우울증의 16%를 설명하고 있다. R^2 의 변화는 유의미하였다 $F(4, 182)=7.48, p=.000$. 차별대우 경험($t=2.05, p < .05$)과 민족정체성($t=-3.63, p < .001$)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정체성($\beta=-.26, p < .001$)이 차별대우 경험정도($\beta=.14, p < .05$) 보다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민족정체성은 우울증과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 차별대우 경험은 우울증과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낮았고, 차별대우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높았다.

〈표 12〉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델	변수	B	Beta	T	Sig.
1	성별	-.52	-.06	-.84	.399
	교육	1.50	.27	.36	.000***
	수입	.05	.02	.24	.813
	거주기간	.12	.24	3.18	.002**
	교회참석	-.05	-.02	-.23	.783
	한국방문	-.15	-.11	-1.53	.128
	차별대우	-.15	-.05	-.64	.524
모델 1 : $R^2 = .118$, Adjusted $R^2 = .085$, Intercept=24.49*** $F(7, 186)=3.55$, $p=.001$					
2	성별	.15	.02	.27	.785
	교육	1.02	.18	2.74	.007**
	수입	.09	.03	.48	.631
	거주기간	.08	.17	2.48	.014*
	교회참석	-.13	-.05	-.71	.481
	한국방문	-.20	-.15	-2.24	.027*
	차별대우	-.30	-.09	-1.44	.152
	통합수렴형	2.49	.24	3.23	.001***
	수용동화형	2.36	.25	3.26	.001***
	주변소외형	-.03	-.00	-.04	.970
	민족정체성	.22	.34	5.05	.000***
모델 2 : $R^2 = .330$, Adjusted $R^2 = .290$, Intercept=16.61*** $F(11, 182)=8.16$, $p=.000$					

*p < .05 **p < .01 ***p < .001

가변수 (Dummy variables) :

성별 : 1=남, 0=여 통합수렴형 : 1=예, 0=아니오

수용동화형 : 1=예, 0=아니오 주변소외형 : 1=예, 0=아니오

<표 13> 우울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델	변수	B	Beta	T	Sig.
1	성별	.77	.05	.69	.491
	교육	-1.32	-.14	-1.78	.078
	수입	-.06	-.01	-.16	.877
	거주기간	-.14	-.16	-2.10	.037*
	교회참석	-1.25	-.16	-2.18	.030*
	한국방문	-.08	-.03	-.43	.669
	차별대우	.67	.12	1.60	.112
모델 1 : $R^2 = .079$, Adjusted $R^2 = .045$, Intercept=20.77*** $F(7, 186)=2.29$, $p=.030$					
2	성별	-.45	-.03	-.42	.673
	교육	-.78	-.08	-1.10	.273
	수입	-.15	-.03	-.40	.690
	거주기간	-.10	-.12	-1.62	.107
	교회참석	-.88	-.11	-.16	.121
	한국방문	-.01	-.01	-.08	.934
	차별대우	.81	.14	2.05	.042*
	통합수렴형	-2.16	-.12	-1.46	.146
	수용동화형	-1.19	-.08	-.86	.392
	주변소외형	2.64	.13	1.65	.101
	민족정체성	-.30	-.26	-3.63	.000***
모델 2 : $R^2 = .209$, Adjusted $R^2 = .161$, Intercept=30.93*** $F(11, 182)=4.38$, $p=.000$					

* $p < .05$ ** $p < .01$ *** $p < .001$

가변수 (Dummy variables) :

성별 : 1=남, 0=여 통합수렴형 : 1=예, 0=아니오

수용동화형 : 1=예, 0=아니오 주변소외형 : 1=예, 0=아니오

6. 토의 및 결론

민족정체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과 한인교회 참석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여자는 집에 머물면서 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며, 남자들보다 주류사회와 접촉할 기회가 적은데서 민족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재미교포사회에서 한인교회는 종교적 기능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Hurh & Kim, 1990). 즉 한인교회는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음식을 나누며 명절을 지킴으로써 한국문화를 계승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뿐 아니라, 한국인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의 연구는 비기독교인 및 무종교인을 포함시켜 한인교회가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2세대가 1세대보다 민족정체성이 높았다. 다른 연구와 차이가 나는 이 결과는 2세대에 대한 표본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2세대는 18세 이상인 성인이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2세대가 고등학생 (Rosenthal, Feldman, 1992) 또는 미국에서 태어난 청소년 (Ting-Toomey, 1981)이었다. 미래의 연구는 민족정체성에 관한 세대차이를 알기 위해 다양한 2세대 표본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적 수용성에 관해서는 2세대가 미국 거주기간이 길며, 유창한 영어와 미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더 많으므로 1세대보다 미국문화와 동일시하였다. 반면에 한인교회 참여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한국문화와 동일시하였다. 이는 한인교회 참여가 재미교포를 미국 주류문화로의 합류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 미국사회에서 특정 민족만이 참여하는 종교단체가 주류문화로의 수용을 촉진시키는지 또는 저해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민족정체성은 자아존중감의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predictor)이었다. 강한 민족정체성은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오는 영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여진다 (Martinez & Dukes, 1997). 이밖에 자아존중감의 정적 예측요인은 교육과 미국 거주기간이었다. 교육을 많이 받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능력과 언어 능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과 높은 수입의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국방문빈도는 자아존중감의 부적 예측요인이었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체험하고 있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면 주변

소외형에 속한 사람이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하였다. 이는 미국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고독감에서 탈피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며, 이런 부정적 감정이나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데서 오는 결과라 생각된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민족정체성은 우울증의 중요한 예측요인이었지만 문화적 수용성은 아니었다. 이는 미국 주류문화와의 동일시보다도 개인이 속한 민족고유 문화와의 동일시가 우울증에 더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차별대우 경험도 우울증의 중요한 예측요인이었다. 이는 차별대우를 많이 느낄수록 우울증이 높아진다는 다른 연구들과 (Finch, Kolody & Vega, 2000; Kessler, Mickelson & Williams, 1999) 일치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사회사업실천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각 클라이언트가 가진 우울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 민족정체성과 문화적 수용성 및 관련 요인들을 평가해야한다. 개입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속한 민족 집단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탐색하도록 도우며, 한국 및 미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한국문화를 배우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한인교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소수민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수정하고 차별대우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바니 지역과 뉴욕시에 사는 재미교포만을 표본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재미교포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측정도구는 서구사회에서 개발된 것으로 심리학적 개념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쉽게 번역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인에 맞도록 측정도구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의 연구는 변수들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민족정체성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재미교포 및 한국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해를 돕고, 재미교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향상, 강화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 참고문헌

- Berry, J.W. (1998). Acculturative stress. In P.B. Organista, K.M. Chun, & G. Marin (Eds.), Readings in ethnic psychology (pp.117-148). New York : Routledge.
- Carlson, C., Uppal, S., & Prosser, E. (2000). Ethnic differences in process contributing to the self-esteem of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 (1), 44-68.
- Choi, G.H. (1997).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Kore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 (1), 81-97.
- Cuellar, I., & Arnold, B. (1995). Acculturation Rating Scale for Mexican Americans-I I: A revision of the original ARSMA scal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7 (3), 275-304.
- Finch, B.K., Kolody, B., & Vega, W.A. (2000).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mong Mexican-origin adults in Californi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3), 295-313.
- Hurh, W.M. & Kim, K.C. (1990). Religious particip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1), 19-34.
- Kessler, R.C., Mickelson, K.D., & Williams, D.R. (1999). The prevalence, distribution,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3), 208-230.
- Liebkind, K. (1993). Self-reported ethnic identity,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young Vietnamese refugee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Refugee Studies, 6 (1), 25-39.
- Martinez, R.O., & Dukes, R.L. (1997). The effects of ethnic identity, ethnicity, and gender on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 (5), 503-516.
- Min, P.G. (1995). Asian Americans :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 Moon, A. (1998). Attitudes toward ethnic identity, marriage, and familial life among women of Korean descent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 Y.I. Song & A. Moon (Eds.), Korean American women : From tradition to modern feminism (pp.65-72). Westport, CT : Prager.
- Moran, J.R., & Flemming, C.M. (1999). Measuring bicultural ethnic identity among American Indian adolescents : A factor analytic stud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4 (4), 405-426.
- Nesdale, D., & Rooney, R. (1997). Migrant ethnic ident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8 (5), 569-590.

- Nguyen, H.H., Messe, L.A., & Stollak, G.E. (1999). Toward a more complex understanding of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1), 5-31.
- Phinney, J.S.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 A new scale for use with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 (2), 156-176.
- Phinney, J.S. (1998).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 Review of research*. In P.B. Organista, K.M. Chun, & G. Marin (Eds.), Readings in ethnic psychology (pp.73-99). New York : Routledge.
- Phinney, J.S., & Rosenthal, D. (1992). *Ethnic identity formation in adolescence : Process, context, and outcome*. In G. Adams, T. Gulotta, & R. Montemayor (Eds.), Ethnic identity formation (pp.145-172). Newbury Park, CA : Sage.
- Radloff, L.S. (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berts, R.E., Phinney, J.S. (1999). The structure of ethnic identity of young adolescents from diverse ethnocultural group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 (3), 301-322.
-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Melbourne, FL : Krieger.
- Rosenthal, D.A., & Feldman, S.S.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ethnic identity in Chinese-American and Chinese-Australia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7 (1), 19-31.
- Sanchez, J.I., & Fernandez, D.M. (1993). Acculturative stress among Hispanics : A bidimensional model of ethnic identific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8), 654-668.
- Sue, D., Mak, W.S., & Sue, D.W. (1998). Ethnic identity. In L.E. Lee & N. Zane (Eds.), Handbook of Asian American psychology (pp.289-323).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 Ting-Toomey, S. (1981). Ethnic identity and close friendship in Chinese- America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 (4), 383-406.